

## “사람 중심의 소통, 글로벌 마인드 도약 꿈꿔”

원광대 재13대 학산 박맹수 총장 취임 봉고식 개최

원광대학교 제13대 학산 박맹수 총장 취임 봉고식이 27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취임 봉고식은 국민의례 및 설명기도와 신입총장 약력보고, 신순철 이사장 축사, 교기전달 및 신입총장 취임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과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태 익산시의장, 전북지역 대학 총장, 전임 원광대 총장 등 내·외부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 박맹수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박맹수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불교는 ‘나를 새롭게 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개혁의 이념으로 탄생했고, 원광대학교는 그 이념을 실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됐다”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디자인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지식이 널리 공유되는 시대에는 지식의 재창조와 활용이 경쟁력을 갖는다”며, “대학은 지식을 소개하는 시장에서 지식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에게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을 제공하고 싶다”는 박맹수 총장은 “대내·외적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적 수행 등 모든 과제에 직면하여 소통과 변화, 그리고 도약을 기치로 내세우고자 한다”며,

“소통과 화합을 위해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세계로 향하는 변화 모색과 글로벌 마인드로 도약을 이룩하고, 사람 중심의 소통, 세계로 향하는 변화, 글로벌 마인드 도약이 제 꿈꾸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원광대학교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공개토론회 및 구성원 평가 등을 거쳐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제13대 총장으로 최종 선임된 박맹수 총장은 원불교 교무로서 2003년 원불교학과 교수에 임용돼 학생복지처장, 원불교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근대사학회장, 모심과살림연구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쳐왔으며, 2022년까지 임기 4년의 원광대학교 제13대 총장직을 수행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학교 제13대 학산 박맹수 총장 취임 봉고식이 27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정읍시 감곡면 이장단협의회, 온정의 손길 보태

정읍시 감곡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이희철, 이하 이장협의회)는 지난 26일 감곡면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장협의회는 지난해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기부문화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희철 회장은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전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명재 감곡면장은 “바를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해도 고생하셨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이장단의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장수군 대림기계, 취약계층 지원 연탄 2000장 기탁

대림기계(대표 황인권)는 27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2000장(180만원 상당)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연탄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인권 대표는 “경영 환경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관심이 기울이는 것이 기업으로써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연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기부해주신 황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OCl 장학회, 군산지역 내 우수 학생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OCl장학회(이사장 한철)는 27일 군산지역 내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5명, 중학생 9명으로 25명의 학생에게 총 1,2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한철 공장장은 “오늘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을 보니 앞으로 다가올 우리사회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미리 마주한 거 같아 기쁘다”며 “전달된 장학금이 학생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OCl 장학회는 총 1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 세운 재단법인으로 올해 24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북강살리기, 중부비전센터서 옛도량복원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지역 도량살리기에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이사장 김택천)은 27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지역 활동가들 비롯해 행정, 학계,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옛도량복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옛도량복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도내 14시군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5년차 사업으로, 도량의 관리와 지역 생태계복원,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도량살리기 활동. 최종보고회는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발표하고, 대안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그 도량! 행복이 분다’는 주제로 열린 옛도량복원사업 보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무주 등 14시군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활동발표와 심사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개회식은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의 개회사와 국주영은,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축사, 그리고 14시군에서 펼쳐진 옛도량복원사업 영상시영이 이어졌다.

2부 발표회에서는 14시군 네트워크가 각 시군에서 펼친 옛도량사업을 설명한 후 심사위원의 주민참여도와 민관협력도, 주민실천정도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다.

이 날 심사위원들은 각 네트워크가 지역특색과 환경영양, 주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업에 접목시켜 자발적 주민참여가 늘어난 것에 한 목소리로 극찬했다. /장문성 기자



## 남원의료원 나눔리봉사단, 생필품 나눔 봉사 실시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 나눔리봉사단은 지난 26일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마을 경로당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사랑을 실천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 지역주민과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8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959)9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4층 (서도중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82-3896	고창지사 563-6989
익산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영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82-389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진안 송풍초·용담중 교직원, 따뜻한 연말 나눔

진안 용담면 송풍초·용담중학교(교장 이미숙) 교직원들이 최근 연말을 맞아 관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나눔 봉사는 이미숙 교장과 교직원들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계획되었으며, 생필품을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추운 겨울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미숙 교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용담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